

우리나라 男性修髮의 變遷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Korea man's hairstyle

全州又石大學 衣裳學科

專任講師 宋 賢 珠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Jeonju Wooseok College

Instructor; Hyon Ju Song

<目 次>	
I. 序 論	IV. 修髮에 內在된 意識
II. 古代北方 遊牧騎馬民族男性들의 修髮樣式	V. 結 論
III. 우리나라 男性의 修髮	參考文獻

<Abstract>

This thesis is for the study of hair style and consciousness concerning Korean men's hairs. Our nation had been originally considered to be a people without decorating their hairs(被髮). The adults however used a bundle of hair which was twirled(상투), and the bachelors wore original hair before wiman chosun(衛滿조선) in B.C. 194.

Since then this twirled bundle of hair had been consistently used until the end of the chosun period(조선시대) from the Three-Kingdom period(삼국시대), except Mongolian hair style which was used for one hundred years during the Won's(元) oppression period at the time of Koryo(고려).

The bachelor's hair style not being adorned was developed into that of twirled bundle of hair which was used for on the Three-Kingdom period to the Koryo period, but this was also transformed into the current hair style due mainly to the decree of short-cut hair style(단발령) in 1895 and the prevalent western clothes.

The origin of men's hair style in Korea was a hair without decoration which was same as that of Ski-tie people in Western country, but our style was different from that of Manju and Mongolian people who have same kinship relationship. And our na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Chinese culture in view of the Twin-Knats style(雙髮) of the unmarried.

Our people's consciousness underlying in hairs shows respect for seniors, standard between adults and adolescents, magics, and desire for ornaments.

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I. 序 論

우리나라는 東方禮義之國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衣冠을 整齊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며 이에 앞서 頭髮을 가다듬는 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原始시대에는 男·女를 불문하고 자연 그대로의 被髮상태이었을 것이나 후대로 내려 오면서 사람들은 풀어 헤친 頭髮이 생활에 불편함을 깨닫고 修髮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修髮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檀君이 開國하던 첫해에 백성들에게 머리를 땅고 冠帽를 쓰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이것은 조선조 후기에 쓰여진 기록이란 점에서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해서는 일말의 의문이 없지 않지만 머리를 거두게 된 것은 오래인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는 알타이語를 사용하는 동북아시아 민족으로 알타이 人文圈에 속한다. 이 문화권은 遊牧·수렵생활의 이동집단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尙武的 집단이며 중국에서는 이들을 西北方은 胡, 東方은 夷로 범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의 修髮에 대하여 변천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古代의 우리나라 문화가 북방유목기 마민족 문화로서 특히 스키타이계 문화에 源流를 두고 있으므로,²⁾ 스키타이계 문화에서 나타나는 修髮의 양상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변천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수발양상이 시대를 달리하여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아울러 수발에 內在되어 있는 우리 선조들의 의식이 어떠한 바탕 위에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修髮에 대한 先行연구로는 유봉영³⁾ 김정자⁴⁾의 몇편의 논문이 있으나 대체로 여성의 髮樣에 관한 것이었다. 본 稿에서는 위에 든 先行연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논의의 대상을 남성의 修髮로 국한하여 문헌과 유물, 벽화, 회화등

II. 古代北方 遊牧騎馬民族男性들의 修髮樣式

古代한국문화의 源流로서 北方遊牧騎馬文化 특히 스키타이계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스키타이”라는 명칭은 廣義의 개념과 狹義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廣義의 스키타이는 주로 내륙 유라시아의 스텝지대에서 활약하던 古代北方遊牧騎馬民族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스키타이系文化를 이룬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며, 狹義의 스키타이는 B.C 7C ~ B.C 3C에 걸쳐 黑海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遊牧騎馬民族을 지칭하고 있다. 스키타이인은 전형적인 기마민족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룩한 종족으로 그들은 동쪽에서 흑해 부근의 남러시아로 B.C 1000년 경에 온 것으로 추측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動物意匠으로 특징 짓는 스키타이인들의 문화양식은 黑海北岸으로부터 우랄산맥의 南端을 지나 카자흐平原을 횡단하여 알타이 山地에 이르고 남시베리아로부터 蒙古高原에 도달하는 草原의 길을 통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스키타이系文化는 B.C 6C ~ B.C에 걸쳐 내륙유라시아 초원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퍼져서 西쪽으로는 Donau 下流域, 헝가리 동지에서부터 남시베리아 키르키즈초원, 알타이산지, 미누신스크盆地를 지나 東쪽으로는 蒙古高原 遼寧省 韓半島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거대한 스키타이系文化圈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⁵⁾.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文字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체의 역사를 기록하여 남겨놓지 못했다. 스텝국가의 역사는 오직 그들 제국과 인접하였던 정착국가들의 史料를 조심스럽게 분석·연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나 그나마 그 시대의 정착국가들의 史料 자체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학적 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여기서는 아쉬운 대로나마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드러난 여러 스텝국가들의 수발양식을 필자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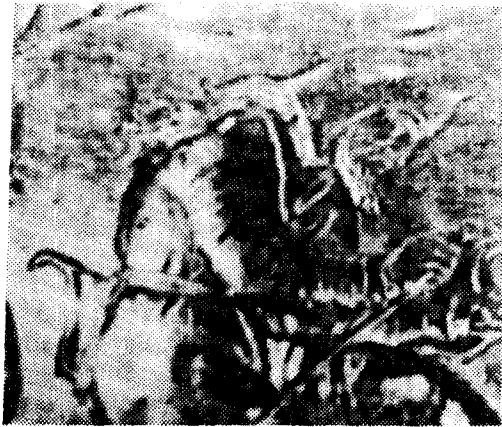
1)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章服一, 李育翊著 黎室記述別集

2) 김문자, “古代한국복식의 源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3) 劉鳳榮 “婦女髮制의 變遷” 향토서울 제 3호

4) 김정자, “우리나라 여성의 髮樣에 대한 연구” 服飾 6호, 1982.

5) 김문자, 上揭書 pp. 4~10.



<그림 1>



<그림 2> Finno-Scythic 인물상 Ananyino 고분 출토

1. 스키타이族

스키타이族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B.C 7C ~ B.C 3C 경에 걸쳐 黑海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유목기마민족이다. 중국의 禮記 王制篇에는 “東方을 夷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머리를 被髮하고 文身하며 불에 익혀 먹는 것이 없었다. 西方을 戎이라 부르며 (그들은) 머리를 被髮하고 가죽옷을 입으며 쌀밥을 먹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 B.C 4C 경의 Kuloba 出土物인 壺에 그려진 스키타이 인물상은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筒袖의 上衣와 下衣, 귀까지 덮는 帽子와 長靴 등이 모두 騎馬

6) 禮記 王制篇 東方日夷被髮文身有不火食者矣, 西方日戎被髮衣皮有不粒食者矣

7) Franç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1967 pp.72

와 防寒에 적합한 복장임을 보여주고있다. 頭髮은 긴 被髮상태이며 “Conical Hat (원추모)” “Pointed Cap”⁷⁾으로 불리는 양귀를 덮는 帽子를 쓰고 있다. 그 모자는 정면에서 보아 이등삼각형의 형태인 바 앞에서 뒤쪽으로 봉합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흉노의 白樺樹皮製 弁形帽와 동일한 제작방법과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통해서도 스키타이족의 문화가 흉노족이나 우리나라의 그것에 일정한 이상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스키타이인의 귀를 덮는 형태의 방한을 결한 帽子는 점차 변화되어 귀를 내놓고 턱아래에서 묶는 끈이 달린 형태로 변형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그림 2>. 또한 B.C 4C 경의 銀製壺에 그려진 스키타이 夫婦像⁸⁾도 모두 긴 被髮을 하고 있고 <그림 3> B.C 3C 경의 Kuban Kurdzhips에서 出土된 Sarmatia 유물도 역시 긴 被髮을 한 인물과 귀를 노출한 弁형의 모자를 쓰고있는 인물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이들 스키타이族은 이상에서 든 遺物들을 통해 B.C 3C 경까지도 被髮상태였고 弁形의 冠帽를 착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匈奴族(蒙古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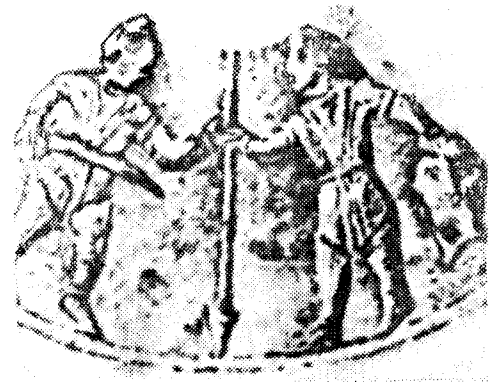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北西방면에 위치하며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종족은 흉노와 東胡(烏桓·鮮卑)를 들 수 있다. 匈奴族은 東아시아에 있어서는 최초의 강대한 기마민족으로 중국의 上古時代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통일된 국가를 건설한것은 시대적으로 보아 秦(221 B.C~207 B.C)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시기와 부합된다. 기원전 210년경에 건설되어 제 2대 통치자 冒頓(약 209 B.C~174B.C)의 재위시에 몽고고원 전유목민족을 통일하여 騎馬民族國家 즉 흉노單于國을 건설하였다⁹⁾. 匈奴와 中國의 관계는 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측의 史書에는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바 漢書 匈奴傳에는 “夷狄사람들은 利食을 좋아하고 被髮을 하며 옷의 여밈이 左衽이다. 사람됨이 獸心과 같고 章服과 習俗이 중

8) E.D. Phillips, The Royal Hordes London 1965 p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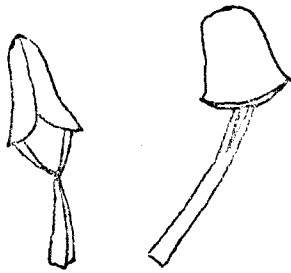
9) 福克蘭著, 송기중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pp. 28~3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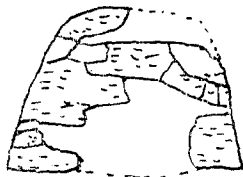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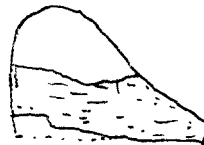
〈그림 5〉 絹製弁形帽

국과 다르다. 음식도 같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 편벽되게 북쪽 변방의 寒露의 들에서 살며 草를 따라 가축을 쫓으며 사냥과 수렵으로 生業을 삼았다.”¹⁰⁾고 하여 흉노족의 被髮左衽을 기록하고

있다. 몽고의 Noin-Ula에서 발굴된 제 6호 무덤에서 B.C 1C~A.D 1C 경 사이의 유품으로 추정되고 있는 絹製弁形帽가 출토되었다.¹¹⁾ 〈그림 5〉 이것은 圓頂形으로 되어 있고 중국산 素文絹 2枚를 실로 둘레를 꿰매어 겹과 안을 만들고 그 속에 대략 같은 형태를 고정시킨 후 봉합하여 冠帽를 만들었다. 이 관모에는 또한 左右에 길이 약 33cm 정도에 달하는 絹紐가 달려 있고, 紐의 윗부분은 둘로 갈라져 있어 양쪽 귀를 내놓고 착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모의 표면에 쓰인 재료는 이미 흉노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산 소문견을 쓰고 있으나 그 전체적인 구조는 스키타이제 弁形帽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白樺樹皮로 만든 弁形帽도 6호분과 4호분에서 출토되었다.¹²⁾ 〈그림 6〉 그것은 B.C 2년 경의 유품으로 圓頂形이



① Noin-Ula 제 6호분출토



② Noin-Ula 제 4호분출토

〈그림 6〉 白樺樹皮製弁形絹

10) 漢書匈奴傳, 夷狄之人 而好利貪被髮左衽, 人面獸心其與中國殊章服異習俗 飲食不同 言語不通, 辟居北垂寒露之野逐草隨畜射獵爲生

11) 梅原末治,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洋文庫論叢 27冊, 東京, 1960.

12) 梅原末治, 上掲書, pp.51~52.

며 표면에 비단을 바른 것인데 이런 면모는 경주에서 출토된 5,6세기 경에 이루어진 신라시대의 백화수피번형모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접에서 스키타이, 흉노, 한반도를 잇는 문화권의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烏桓, 鮮卑(東胡)

오환과 선비는 東胡로 불렸으며 匈奴의 東쪽에 거주하였다. 後漢書 烏桓傳에 “오환은 東胡이며 漢代の 初에 匈奴의 冒頓單于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여 나머지 부족은 烏桓山에 있었기 때문에 오환이라 불렀다. 그 풍속은 騎射를 잘하고 새나 짐승을 잡아 생활하며 물이나 牧草를 따라 放牧生活를 하며 流浪했다.”¹³⁾고 하며 “父子男女가 서로 걸터 앉아서 對하고 髡頭로서 輕便하게 한다. 부인은 결혼할 때에 이르러 머리를 기르고 나누어서 髻를 만든다”¹⁴⁾고 하였다. 또한 後漢書 鮮卑傳에는 “그 언어 습속이 오환과 동일하다.”¹⁵⁾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직 혼인 때에 먼저 髡頭를 한다”고 하였다¹⁶⁾. 여기서의 髡頭는 머리털을 깎은 모양인 것으로 추측되나 명확하게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4. 漢代의 西南夷族

漢代의 西南夷는 지금의 雲南·貴州·四川·甘肅省 일대에 살고 있던 족속을 말한다. 이들은 북방계 종족은 아니지만 古代의 중국기록에 나타나는 夷族으로서 비교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때의 西南夷는 여기저기에 부족국가를 세우고 농경생활 아니면 유목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문화수준은 극히 낮았다.¹⁷⁾ 史記와 漢書·後漢書에 기록된 南蠻·西南夷列傳에는 “西南夷의 君長은 십수개가 있는데 夜郎이 최대이다. 그 서쪽에는 靡

莫之屬이 십수개 있는데 滇益州지금의 雲南)이 최대이다. 滇으로부터 以北은 君長이 십수개 있는데 邛都(四川省)가 최대이다. 이 모두는 椎結을 하며 발을 같고 邑聚가 있다. 그외 西는 同師의 東으로부터 北은 葉榆(益州)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髡毘明이라 하는데 이들은 모두 編髮을 하였고 가축을 따라 무리지어 이동하고 일정한 기처가 없었다. 君長도 없으며 지방은 수천리였다. 犍羅로부터 東北에 笮都國이 있다. 笮都夷들은 漢武帝때 열리어 笮都縣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被髮左衽을 하였다¹⁸⁾.”고 기록되어 있어 西南夷들은 지역에 따라 각각 椎結(상투)과 編髮과 被髮양식으로 修髮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중 椎結은 사천성·광시성·위만성 베트남 북부등의 농경 정착 사회에서 행해졌으며, 편발은 쿤밍등 유목이동사회에서 행해졌음을 비교할 수 있다.

5. 吐谷渾

토곡혼은 鮮卑의 후예로 추측되는 부족이며 3세기 경에 코코노르(靑海) 지역에 이주하여 왔다. 그들이 왜 원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티벳과의 접경지대인 코코노르지역으로 이동하였는지 기록에 언급된 것이 전혀 없다. 이 부족의 명칭은 제 3대 왕 葉延(330~352)이 그의 조부 “토곡혼”을 추모하여 붙인 이름이며 5세기초에 비교적 강력한 왕국으로 등장하였으나 티벳의 침공을 극복하지 못하여 670년에 완전히 소멸되었다¹⁹⁾. 北史 列傳 吐谷渾條에 “夸呂는 깃털과 구슬로 椎髻를 하고 阜로써 帽를 만들어 쓰고 金獅子狀에 앉아……그俗이 丈夫衣服은 대략 華夏와 같고 羅羈으로써 많이 冠을 만들고……”²⁰⁾라 하여 修髮양식이 椎髻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東胡로서 西南下하여 선비족이었을 때의 수발양식은 “髡頭”였던 것이 코코노르(칭하이)에 살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추계로 수발한 것으로 짐작된다.

13) 後漢書烏桓傳 烏桓者本東胡也 漢初匈奴冒頓滅其國餘類保烏桓山因以爲號焉 俗善騎射，弋獵禽獸爲事 隨水草放牧居無常處

14) 上揭書 父子男女相對踞蹲 以髡頭爲輕便 婦人至嫁時乃養髮分爲髻

15) 後漢書鮮卑傳 其言語習俗與烏桓同

16) 上揭書 唯婚姻先髡頭

17) 이준식, 중국고대사의 전개, 예문출판사, 1986 pp. 256~251.

18) 史記漢書後漢書南蠻西南夷列傳 西南夷君長以什數夜郎最大 其西靡莫之屬以什數滇最大自滇以北君長以什數邛都最大 此皆椎結耕田有邑聚其外西自桐師以東北至葉榆名爲髡毘明 編髮隨畜徙亡常處亡君長地方可數千里

19) 獨攬 上揭書, pp. 46.

20) 北史列傳吐谷渾條 夸呂椎髻戴珠 以阜爲帽坐金獅子狀 其俗丈夫衣服略同於華夏多以羅羈爲冠

6. 蠕蠕(연연)

몽고지방의 흉노·선비 그리고 탁발 터어키족의 지배는 5C 초엽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유복민제국 蠕蠕족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원시 터어키족과 원시 몽고족의 혼합종으로 이 민족이 건설하였던 제국의 판도는 대체로 오르곤강과 셀렝가강 유역을 중심으로 天山산맥 북쪽 기슭까지 그리고 오르도스 스텝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蠕蠕이란 이름은 중국 기록에 여러가지 한자로 나타나는데 경멸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 즉 “꿈틀거리는 벌레”라는 뜻이다. 연연은 북위의 세조(408~452)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柔然” 후에는 “芮芮”등으로 와전되었다. 555년과 556년 돌궐의 연이는 공격으로 무너진 연연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유럽역사에서 Avar 족이 되었다.²¹⁾ 南史 夷貊下 蠕蠕條에 “대개 흉노의 별종이다. 魏가 南쪽으로 옮긴 뒤부터 그 옛땅을 차지하여 뒤흔들었다. 城郭은 없으며 水草를 따라 牧畜을 하며 穹廬에서 살았다. 辮髮을 하고 小袖袍와 小口袴를 입는다.”²²⁾고 하고 北史 列傳 西域 蠕蠕國條에 “그 部族人을 보면 옷을 빨지 않고 辮髮하지 않고 세수하지 않는다.”²³⁾고 하였고 南齊書 列傳 芮芮虜條에는 “변방밖의 雜胡이고 編髮左衽을 하였다.”²⁴⁾는 기록들이 있다.

7. 突厥

돌궐이 중국사료에 언급된 시기는 3세기중엽이었으나 6세기까지는 그 세력이 중요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돌궐은 연연의 복속민으로서 그 지배층을 위하여 대장장이 일과 철공일을 담당하였으나 556년 연연을 무너뜨리고 몽고의 계승자가 된 순수한 터어키족이다.²⁵⁾ 그들의 본거지는 알타이산맥지역으로 돌궐의 고대 터어키제국은 건국 당초부터 이미 알타이산을 경계로 해서 두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동돌궐은 몽고의 오르곤강 유역에 중심을 두었고 서돌궐은 준가리아분지와 천산북쪽

기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²⁶⁾ 北史 列傳突厥條에 “그 풍속이 被髮左衽을 하며, 穹廬에 살고 毳帳을 두른다. 水, 草를 따라 옮겨 다닌다. 畜牧과 射獵으로 일을 삼고 고기를 먹고 소젖을 마신다. 屨에는 裘褐을 입는다.”²⁷⁾고 하였다.

8. 高昌(카오창)

고창왕국은 투르판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前漢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에 유목제국과 중국간의 분쟁지역이 되었다. 고창국은 突厥제국의 발흥과 때를 같이 해서 주로 터어키족으로 구성된 유목종족들이 고창왕국의 기본이 되는 인도유럽어족과 혼합되었다. 이 지방은 중국족인 키우(麴) 왕조가 6세기경에 지배하였으며 그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깊게 침투되었다. 640년에 唐은 키우왕조를 멸망시켜 그 전역을 정복하였다. 그 후 티벳이 잠시 지배한 후 그 전역은 위궐의 터어키제국의 일부가 되었다(850년경). 옛수도인 高昌은 그 전성기에 全國家를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며 그것은 QOCO(퀴초)라는 터어키식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²⁸⁾ 北史西域 高昌條에는 “복식이 丈夫는 胡法”을 따르고 부인은 군유를 입으며 머리에 는 髻를 만들었다. 옛날에는 나라가 변방의 荒境한 곳에 있었으며 被髮左衽이었다”²⁹⁾고 하였다. 그런데 梁書諸夷 高昌條에는 “面貌는 高麗와 비슷하고 辮髮을 등뒤에 드리웠다.”³⁰⁾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조금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그림 7>, <그림 8>

9. 滿州族

중국의 東北部로부터 만주에 걸쳐서 살고있던 東夷에는 貊 또는 肅慎의 部族名이 나타난다. 그 肅慎은 古代 만주 東北部(北流松花江以東 黑龍江以南)에 살고 있던 부족으로 漢代 이후에는 挹婁로 6세기 중엽에 쓰여진 魏書에는 勿吉이라는 부

21) 福克蘭, 上揭書, pp. 39.

22) 南史夷貊下 蠕蠕條蓋匈奴之別種也, 魏自南遷因擅其故地, 無城郭隨水草畜牧以窮廬居. 辮髮. 衣錦小袖袍小口袴

23) 北史列傳西域 蠕蠕國條 見其部人不浣衣, 不辮髮, 不洗手

24) 南齊書列傳 芮芮虜條 塞外雜胡也, 編髮左衽.

25) 福克蘭, 上揭書, pp. 57.

26) 대세제의 역사. 5권. 삼성출판사, 1982. pp. 323.

27) 北史列傳突厥條 其俗被髮左衽隨逐水草遷徙以畜牧射獵爲事食肉飲酪身衣裘褐

28) 마리오 부세글리著. 권영필역 중앙아시아회화. 일지사. 1979, pp. 129.

29) 北史西域高昌條 服飾丈夫從胡法婦人裙襦 頭上作髻先者以國處邊荒境被髮左衽

30) 梁書諸夷高昌條 面貌類高麗髮垂之於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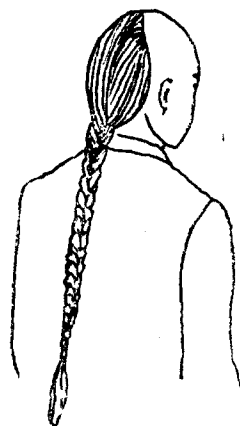


<그림 7>



<그림 8>

죽명으로, 7세기 초엽에 이루어진 隋書에는 靺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뒷날의 女眞族으로써 오늘날 滿州族이라고 불리는 민족이다. 3세기에 쓰여진 三國志 魏書 挹婁傳에 “그 人形은 扶餘와 같으며 言語는 扶餘句麗와 같지 않다.”³¹⁾고 하였다. 晉書 肅慎傳에 의하면 “挹婁族은 編髮의 風俗이 있었다.”³²⁾고 하고 舊唐書나 唐書의 기록에 靺鞨族은 編髮의 風俗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唐書에는 “黑水靺鞨族은 雉尾를 꽂아 冠飾으로 하였다”³³⁾고 하여 고구려 人의 冠에 雉羽를 꽂는 風俗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여진족의 生活에 관한 기록이 三朝北盟會編 卷3 女眞風俗에 “그 의복은 衣布이며 白衣를 좋아하고 옷의 길이가 짧고 左襟이다. 부인은 머리를 땅아서 髻를 만들어 두르고 남자의 辮髮은 뒤에 늘어뜨렸다. 귀에는 금을 달고 腦後의 머리털을 남겨서 이를 색실로 묶고 부자는 구슬로 꾸몄다.”³⁴⁾고 하였고 또 大金國志 卷39 男女冠服의 項에 “금의 俗이 白衣를 좋아하고 辮髮을 어깨에 늘어뜨리고 거란(몽고)과는 더불어 다르다……”³⁵⁾라 하였다. 後金 즉 清代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정복하고 수도를 北京으로 정한 後 世祖는 1664년 剃頭辮髮令을 내렸다. 이로 인해 清代를 등



<그림 9>



<그림 10>

31) 三國志魏書挹婁傳 其人形似扶餘言語不與扶餘句麗同
 32) 晉書肅慎傳 俗皆編髮
 33) 唐書舊唐書 插雉尾爲冠飾自別於諸部
 34) 三朝北盟會編卷三女眞風俗條 其衣服則女好白衣短而左襟, 婦人辮髮盤髻 男子辮髮垂後 耳垂金銀留腦後髮 以色絲繫之 富者以珠玉爲飾
 35) 金俗好白衣 辮髮垂肩與契丹異 황중동, 여진풍속고, 제명대동서문화그림,
 36) 宮崎市定저, 조병한역, 중국사, 역민사, 1983, pp.371.

하여 剃頭辮髮이 일반적인 풍속으로 굳어졌으나 1911년 辛亥革命 때의 斷髮令으로 인해 변발이 사라졌다. 변발은 민족과 시대에 따라 다소 相異하

〈표 1〉 古代北方 游牧騎馬民族의 修髮樣式

部族名	주거지	주활동시기	修髮樣式
스키타이	옥해 주변	B.C 1~B.C 3C	被髮
匈奴	몽고고원	B.C 3~A.D 2C	被髮
東胡(烏桓 鮮卑)	황노의 동쪽	BC 2C~	髡頭
漢代の西南夷	夜郎	B.C 2C 경	椎結
	滇		椎結
	邛都		椎結
	犍昆明		編髮
	笮都國		被髮
吐谷渾	코코노르(靑海)	3~7C	椎髻
蠕蠕	몽고지방	5~6C	辮髮
突厥	몽고지방	3~6.7C	被髮
高昌(카오창)	투르판	45C~	被髮
滿州族	단주지방	B.C 3C~	編髮

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清代로 後頭部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의 頭髮을 모두 깎아버리고 남은 후두부의 모발만 길게 길러서 땅아 동위로 늘어뜨렸다. 〈그림 9〉 〈그림 10〉.

이상까지 살펴보았던 바를 표로 간추려 보이면 〈표 1〉과 같다.

〈표 2〉 부족연맹국가시대의 髮樣

史書	髮樣
史記朝鮮列傳	髡結
三國志馬韓傳	髡頭露辮
三國志夫餘傳	金銀飾帽
三國志弁辰傳	長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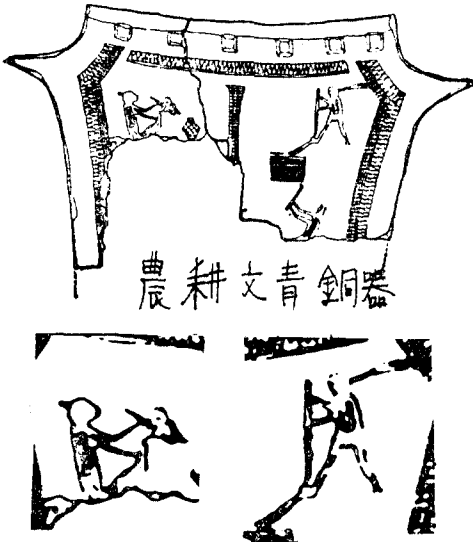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男性의 修髮

1. 古代社會

우리 민족은 중국의 東北部 몽고의 南部에 살다가 만주평야와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東夷族을 根幹으로 한 민족이다. 우리나라의 髮樣에 관한 기록은 상세하지는 않으나 部族聯盟國家時代때부터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史記에는 衛滿朝鮮의 燕將 衛滿이 조선에 入國할 때 “髡結蠻夷服으로 왔다”고 하고(B.C 194), 三國志, 馬韓傳에는 “其人性勇 髡頭露辮如戾兵”이라 하여 머리는 상투를 짜서 노출시켜 戾兵과 같다고 하였고 또 “그 俗이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가 郡에 나가 朝謁할 때에는 모두 衣幘을 빌려서라도 착용하였다”고 하여 首長級은 衣幘이 있었고 貧民들은 맨머리에 상투를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 夫餘傳에 의하면 “以金銀飾帽”라 하였으니 금과 은으로 장식한 모자를 썼던 것 같다. 또한 三國志 弁

辰傳에는 “其人形皆大 衣服潔清長髮이라 하였는데 이는 머리를 길게 빗어내린 상태로서 被髮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이상의 기록들로 볼 때 우리나라 남자의 髮樣은 衛滿朝鮮(B.C 194) 以前에 상투라는 양식으로 修髮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弁辰의 長髮은 미혼남자들의 髮樣으로 被髮이 계속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로서 대전 괴정동 출토의 農耕文靑銅器³⁷⁾가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 청동문화의 발전기(B.C 300~0)의 유품으로서 농경의 모습을 線刻人物들과 함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1〉 여기에서 우리의 청동기시대의 발양이 상투와 被髮의 두 양식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투를 한 것은 成人이고 被髮한 것은 未娶인 것을 짐

37) 한국사, 1. 고대편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6~7, 308~309. 이 靑銅器時代는 부족연맹국가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馬韓의 유물로부터. 또한 같은 괴정동 석관묘에서 청동馬面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민족이 시베리아계통의 기마민족의 일파로서의 위치를 명시해 주고 있다.



〈그림 11〉

작하게 한다.³⁸⁾ 부족연맹국가시대를 지나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기록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5세기경 輯安縣無踊塚의 踏卷圖(그림 12)와 輯安縣角觚塚의 씨름하는 2人的 男人圖(그림 13)에서 상투(豎髻)를 볼 수 있는 데 두 그림에서 보이는 상투의 크기가 현저히 다르다. 하나는 현저히 크고 하나는 오늘날의 상투와 거의 다름없는 적은 것이다.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상투가 중국인이 魑結을 椎結(방망이추)로 기록한 것으로³⁹⁾ 생각되며 〈그림 13〉처럼 작은 상투는 머리 술이 많은 사람이 머리털을 슈아낸 것으로 후세의 “백호친다”는 풍습이 이때에도 행해졌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에 冠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투가 가려져서 볼 수가 없으나 冠帽을 쓰기 위해서는 백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림 14〉 고구려의 관모에 대하여 古記錄에 나타난 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表와 같다⁴⁰⁾ 〈表 3〉. 여기서 보면 庶人과 官人과의 관모가 다름

38) 김동욱, 백제의 복식,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pp. 4~5.

39) 漢書 朝鮮傳

40) 이여성, 조선복식고, 제 1장,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 출판부 pp. 53.

〈표 3〉 고구려의 冠帽

階級	王	貴人大官人	官人	庶人
史書				
魏志		無後幘	折風巾	
後漢書		無後幘	折風巾	
南齊書		折	風	幘
魏書		鳥羽折	風弁	折風弁
北史		鳥羽折風	弁紫羅蘇骨	折風弁
南史		無後幘	折風弁	
周書		紫蘇骨	鳥羽蘇骨	
梁書		無後幘	折風巾	
隋書		鳥羽冠	紫羅冠	皮冠
通典		無後幘	折風巾	
舊唐書		青羅鳥羽冠	絳鳥羽冠	弁
唐書	白羅冠	青羅鳥羽冠	絳羅鳥羽冠	弁
翰苑		金銀鹿耳	無後幘	折風

을 볼 수 있는데 幘은 大加主簿 즉 貴人 大官階級の 전용물로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이며 일반 남자들은 弁形의 折風을 착용하였다. 이는 백제 신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착용되었으며 유물도 다수가 발굴되었다. 특히 신라의 여러 고분에서 出土되는 白樺樹皮製弁形帽은 頂이 둥근 圓頂形과 각이 진 方頂形의 두가지 類가 있는데 이것은 삼각狀의 弁形에서 점차 변화하여간 것이며 관모의 기본형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겠다. 〈그림 15〉 신라의 白樺樹皮製弁形帽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스키타이族의 弁形帽과 흉노족의 白樺樹皮製弁形帽와 제작기법 형태등이 똑같으며 특히 Noin-Ula 4호분 출토품은 경주 식리총 금관총 천마총에서 출토되는 圓頂形과 똑같고 Noin-Ula 6호분 출토품은 경주금명총 출토의 圓頂形과 똑같다. 이들 유품들은 또한 프랑스 파리 교의 국립고고박물관에 소장된 露領 심비르스크에서 온 유품과 비교된다 하니 신라의 백화수피변형모는 그 재료 제작기법 형태 등을 통해 볼 때 그 원류는 북방계로서 신라에서는 5,6세기경에 성행한 것이다.⁴¹⁾ 또한 冠帽을 쓰지 않은 남자들의 髮樣이 긴 머리를 묶은 것 즉 束髮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혼남자의 髮樣으로 弁辰時代의 “長髮”이 머리를 묶는 형태로 발전한

41)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고대편, 교양국사 총서 29 1978 pp. 187



<그림 12>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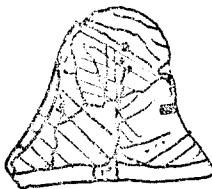
<그림 14>

圓頂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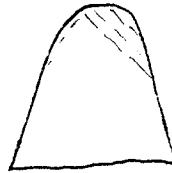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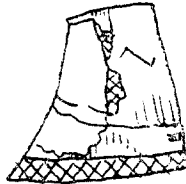
方頂形

圓頂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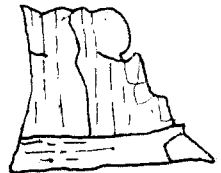
方頂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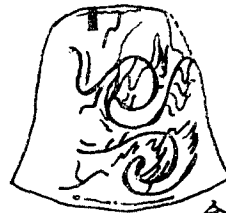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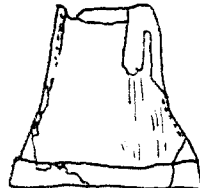
舒飾履塚壺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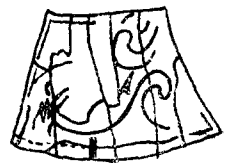
天馬塚壺豆



金冠塚壺豆



金鈴塚壺豆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신라에서는 唐書東夷傳 新羅條에 “신라의 男子는 머리를 잘라서 팔고 黑巾을 썼다”⁴²⁾고 하였으니 弁辰의 長髮과 백락이 닿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미혼남자의 髮樣으로 雙紉 즉 쌍상투를 들 수 있는데 쌍제는 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詩齊風

42) 唐書東夷傳新羅條 男子剪髮覆冒以黑巾

에 「總角帥兮」라 있고 孔穎達疏에 「總聚其髮 以爲兩角」이라 있는 것을 보아 중국에서는 先秦시대에 벌써 그와 같은 髻法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漢六朝 隋 唐代에 전하여져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퍼진 것이다.⁴³⁾ 이 쌍상투는 중국의 明代 초 倪瓚(1301~1374) 畫像中에 있는 童子의 髮樣⁴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 19〉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는 龕神塚 벽화의 여인과 〈그림 20〉 中和郡 第四號墳 벽화의 여인 〈그림 21〉 등 주로 여성이 雙髻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 高麗時代

高麗時代에는 高麗圖經에 “시집가기 전에는 서민의 딸은 紅羅로 束髮하고 그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男子도 같으나 紅羅대신 黑繩으로 묶는다.”⁴⁵⁾ 대개 고려인이 아직 장가들지 않는 자는 다 巾으로 머리를 싸고 뒤에 머리는 被下하다가 장가든 뒤에 束髮한다”⁴⁶⁾고 하였다. 또 宋史에는 “男子의 巾幘은 唐裝과 같다”⁴⁷⁾고 하였으니 이는 고려의 미혼남자들은 巾으로 머리를 싸고 뒤의 被髮한 머리는 黑繩으로 묶었으며 장가든 뒤에 한 束髮은 상투를 튼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도 당나라 양식의 巾幘을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형태는 高麗鏡背面 인물도에서 볼 수 있는데⁴⁸⁾ 〈그림 22〉 이차돈 공양당 인물에 보이는 전양과 비슷하던가⁴⁹⁾ 〈그림 23〉 중국의 唐巾을 모방하여 뒤로 젖혀진 것이 다르다. 고려의 頭巾은 다만 文羅를 중히여겨 한 巾의 값이 쌀 한섬이 되어 가난한 백성은 이를 장만할 밀친은 없었고 또 露頭로 罪因과 다름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竹冠을 만들어 쓰는데,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여 전혀 일정한 制度가

43) 이여성, 朝鮮服飾考, 백양당, 1981. pp. 281~182.

44) 故宮圖像選萃, 中華民國臺灣省國立故宮博物院, 1973. pp. 38.

45) 高麗圖經卷二十婦人 「民庶之家好未嫁紅羅束髮其餘被下 男子亦然物易紅爲黑繩耳」

46) 高麗圖經卷二十一小親侍 「大率未娶者皆裹巾而被髮于後既娶而後束髮爲小親侍」

47) 宋史卷四百八十七 高麗圖經卷二十二雜俗 「男女巾幘如唐裝」

48)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9 pp. 149

49) 이은창, 한국의冠帽 영남대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2. p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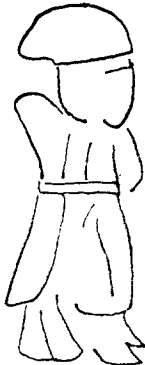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없었다.⁵⁰⁾ 그러다가 고려말 원나라에 服屬하게 된 후 王室이하 지배계급인 官僚層에서부터 蒙古風을 쫓는 풍조가 생겨나 胡服을 입고 開剃辮髮하기 시작하였다. 開剃辮髮은 蒙古族 滿州族 특유의 髮樣으로 머리의 주위를 다 깎고 중앙의 머리털만 남겨서 길게 땅아 늘인 것을 말하는데 몽고어로는 「Kekul」이라고 하며 漢字로는 「怯仇兒」라 쓰고 있다. 고려 元宗 13년(1272)에 世子 湛이 元에서 돌아올 때 辮髮과 胡服을 입고 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케 하였고⁵¹⁾ 忠烈王으로 즉위한 후 同王 4년에는 國內에 劄을 내리어 몽고의 衣服과 開剃辮髮할 것을 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宰相으로부터 下僚에 이르기까지 開剃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오직 禁內學館(翰林院 春秋館등)의 學生들만이 이

50) 高麗圖經, 卷十九舟人「高麗頭巾唯是重文羅 一巾之價准米一石細民無異可得 復耻露頭與罪因無別 故作竹冠以冠之或方或圓初無定制」

51) 高麗史十三年

를 즐겨하지 않았으나 결국 학생들도 모두 開剃하게 되었다.⁵²⁾ 〈그림 24〉

그러나 共愍王(1351~1374)元년에 원나라 세력의 약화를 기회로, 자주적인 중흥정책의 일환으로써 辮髮을 풀고 다시 상투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3. 朝鮮時代

조선시대는 元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剃頭辮髮을 풀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상투로 다시 수발하였다. 〈그림 25〉 〈그림 26〉 조선시대는 발양자체의 단순함에 비하여 冠帽는 冠, 帽, 笠, 巾 등과 이밖의 頭飾으로 나눌 수 있다. 미혼자의 발양은 「朱子冠禮家禮에 “將冠者雙紒”라는 기록이 있어 冠禮를 할 총각과 笄禮를 할 처녀는 쌍상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몽고풍의 영향도 적지 않게 남게 되었으나 童子의 변발도 그 중의 하나이

52) 高麗史卷二十六輿服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다. 李晬光(1553~1628)은 芝峰類說에서 “童子번 발은 胡俗에서 나온 것이다. 禮法을 지키려는 집 안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따르려고 하지만 오래된 풍속을 출연히 고치기가 어렵다.”⁵³⁾고 하였고 鄭桐溪(1569~1641)와 宋尤菴(1607~1689)이 晩年에 子弟들의 辮髮을 蠻俗이라 하여 풀게 하고 쌍상투를 만들 게 하였으나 습속을 변경하기 어려워 다시 번 발로 돌아오고 말았다.⁵⁴⁾ 檀圓 金弘道가 그린 풍속화에는(1770~1780년경) 쌍상투가 대체로 郡仙圖에서 仙人이나 仙童, 仙女の 발양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이로 미루어 볼 때 쌍상투가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髮樣이 아님을



〈그림 30〉

53) 李晬光, 芝峰類說 卷二, 諸國部, 風俗
童子之辮髮出 於胡俗 禮法文衆 欲遵率制而舊俗難以狹變
54) 朴珪壽, 居家雜服考, 幼服篇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까지 이어오던 束髮이 조선 시대에 와서는 번발로 바뀌어 斷髮令 이전까지 총각의 발양으로 습속이 굳어졌다. <그림 30>

IV. 修髮에 內在된 意識

우리 민족은 古來로부터 衣冠을 갖추는 것을 禮로 삼았고 衣冠을 갖추기 위하여 頭髮부터 가다듬었다. 우리 민족이 1895년 乙未年 斷髮令이 있기 전까지 修髮에 부여한 독특한 象徵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1. 頭髮과 孝意識

身體髮膚는 父母에게서 받은 것이다 감히 상하지 못하며 만일 이를 상한다면 父母의 骨肉을 상하는 것이니만큼 不孝가 된다는 孔子의 가르침을 본받아 털끝하나라도 다치지 않는 것을 자식의 큰 도리로 생각하였다. 斷髮이란 신라에 있어서는 (고구려 백제에서도 同樣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俗人이 沙門에 들어가는 첫 斷髮受戒의 표시였으며 佛僧이 되는 者가 「祝髮」「落髮」하는 것과 같은 특수 경우에 한한다.⁵⁵⁾ 俗人이 斷髮치 않았던 것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다름이 없다. 이처럼 년면히 이어져 내려온 상투制는 조선왕조 末期에 이르러 近代化를 위한 1894년의 甲午更張에 이어 1895년 乙未年에 내린 斷髮令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斷髮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분노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頭可斷髮不斷」이라하여 죽음으로 저항하였으나 大勢는 이미 기울어져 斷髮과 함께 西洋服을 입게됨으로써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2. 成人과 未成年者를 구별하는 기준

어린이가 成人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儀式으로 冠禮가 있었다. 이 冠禮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行해져왔는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으나 삼국시대에 중국의 禮

教가 전해 들어옴에 따라 傳來된 듯 하며⁵⁶⁾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光宗 16年(1965)이래 王子에게 元服의 禮를 한 것을 시초로 조선시대에 와서도 王族 貴族은 물론 儒教에 젖은 상층 지식계급에서 널리 행해졌다.⁵⁷⁾ 程子の 말에 의하면 “冠禮를 했어도 成人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몸을 마치도록 成人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冠禮가 成人됨에 혼례보다 더 重하게 여겨졌음을 알겠고 士大夫 집안에서는 冠禮잔치를 婚禮잔치보다 더 성대하게 하였다. 冠禮는 보통 혼인날을 앞두고吉日을 택해서 하였고 여자의 경우도 15세가 되면 婚姻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笄禮를 치른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婚約이 성립되었을 때에 笄禮가 행해진 것 같다.⁵⁸⁾ 禮記內則에 「男女未冠笄者 櫛總角十有五年而笄」라 있고 白虎通義에 「男子幼娶必冠」이라 있어 冠笄하는 것은 곧 娶嫁하는 것이었다.⁵⁹⁾ 그러나 1895년 乙未年의 斷髮令 이후 冠禮 笄禮는 찾아볼 수 없이 되고 그 단어조차도 생소한 낱말이 되어버렸다.

3. 頭髮과 관련된 呪術意識

일년동안 머리를 빗을 때에 빠지는 머리털을 버리지 않고 빗집에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설날 저녁에 불에 태웠는데 元日 황혼에 문밖에서 燒髮하면 辟邪 즉 염병을 피한다는 俗信에서 그렇게 하였다.⁶⁰⁾ 身體에서 단절된 부분을 통해서 魔術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무수한 實例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根本觀念은 사람과 그의 신체의 일부분이었던 모든 것 사이에 어떤 형태로건 결합이 있다고 하는 共感的 關係이다. 잘리어진 모발이 원래의 所有者와 共感的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마침 그것을 소유하게 된 어떤 者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傳播呪術의 원리에 의해서 모발에 해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원래의 소유자

56)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pp. 414.

57) 한국민속대관 1. 冠婚喪祭,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p. 575.

58) 김두현, 上揭書, pp. 416.

59) 이어성, 上揭書, pp. 281.

60) 한국민속대관, 4. 歲時風俗, 傳承놀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pp. 165~166.

55) 三國遺事卷四義湘傳教條 「年二十九依京師皇福寺落髮」
三國遺事卷四關東楓岳鉢淵菴石記 「鄭以手執金兼白斷頭髮師以非心 更爲祝髮受戒」
三國遺事卷五信忠掛冠條 「掛冠入南岳再徵不就落髮爲沙開」

에게 危害를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⁶¹⁾ 그러므로 빠진 머리털을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 두었다가 실낱 저녁에 髡髮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좃고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행위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4월 초파일에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러면 雜色이 안되고 운택해진다 하며 命이 길어진다고 믿는다⁶²⁾ 端午에는 머리를 땀은 처녀총각들은 菖蒲를 뜯어다가 물에 끓여 머리를 감고 그 뿌리의 흰부분은 너대치를 깨끗이 닦아 그 끝에다 붉은 칠을 해서 머리에 꽂거나 허리에 차기도 한다. 宋나라 王沂公의 端午帖에 「菖蒲를 자르는 것은 邪鬼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는데⁶³⁾ 이로 볼 때 그 유례가 먼 것이다. 오늘날 까지도 端午에는 여인들이 菖蒲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⁶⁴⁾ 또 남녀 어린이들이 菖蒲湯에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으며 창포 뿌리를 깎아 비너를 만들어 壽字나 福字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기도 했는데 이것을 端午粧이라 하였다. 이렇게 붉은 연지를 비너 끝에 칠하는 이유는 붉은 색이 陽色으로 귀신을 쫓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6月 15日. 流頭日에는 東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리는데 고려 明宗때 학자 金克己集에 東都(경주)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이라 하였다.⁶⁶⁾ “流頭”란 「東流頭沐浴」이란 말의 略語이다. 東流에 가서 머리를 감는 이유는 東方이 靑이요 陽氣가 가장 왕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流水에 몸을 씻는 것은 물에 정화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心身을 물에 담가 더러움을 떨쳐버리는 세계의 보편적인 습속으로서 불교의 灌頂 그리스도교의 洗禮가 모두 이에 근거한다.⁶⁷⁾

61) Frazer, James George 著, 김상일譯, 황금의 가지, 을유문화사, 1975, p. 303~307.

62) 한국민속대관 4, pp. 211.

63) 金邁淳, 湖陽歲時記(조선조정조때의 학자) 대양서적, 1972 pp. 132.

64) 한국민속대관 4, p. 199.

65) 洪錫謨, 東國歲時記, 대양서적, 1972, pp. 77.

66) 洪錫謨, 東國歲時記(조선조 정조, 순조때의 학자), 대양서적, pp. 84.

六月十五日 東俗稱流頭日 按金克己集 東都遺俗 六月望日 浴髮於東流水 祓除不祥

67) 한국민속대관 4, pp. 201.

V. 結 論

人間の 頭部는 신체 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修髮에 대한 관심도 일찍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北方系 遊牧騎馬民族의 문화권에 포함되며 그 중 스키타이人들의 弁形帽과 흉노족의 白樺樹皮被弁形帽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弁形帽과 형태 제작기법, 재료면에서 동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古代의 冠帽은 북방계 유목기마민족 문화권에 원류를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修髮方式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키타이족은 B.C 3C 경까지 被髮이었으며 흉노족도 역시 B.C 2C 경까지 被髮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의 후반기(B.C 3C~0)에 이미 상투모양(椎髮)으로 수발하였다. 그리고 인접하였던 東胡(烏桓, 鮮卑)의 髡頭와 滿州族의 辮髮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수렴, 유목을 生業으로 삼고 사는 종족들과 농경을 主業으로 정착생활을 하는 종족사이에 뚜렷한 수발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같은 북방유목기마민족에 속한 나라들이 수발양식은 다르면서 관모가 동일한 형태 재료 제작기법을 보인다는 것은 수발양식이 정착된 후 관모가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椎髻가 기록에 나타나는 B.C 194년 위만조선 때이지만 그보다 더 이른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되고 목축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되어진 B.C 7C~B.C 경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男性의 髮樣은 크게 기혼자의 상투제와 미혼자의 束髮(元代복속 이후에는 辮髮), 雙髮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남성의 成人발양은 고려말 원나라의 복속하에 있음으로 해서 몽고 양식인 剃頭辮髮을 근 백년정도 행한 것 이외에는 역사의 여명기부터 1895년 斷髮令이 있기까지 상투로 수발하였다. 미혼남자(총각)들의 발양은 부족연맹국가시대의 弁辰의 長髮을 被髮상태로 추정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외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하여 束髮(긴머리를 묶은 상태)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先秦시대부터 있었던 雙髻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져 미혼남녀의 발양으로 행해졌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주로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미혼자들의 보편적인 발양은 아니고 冠禮時 일시 만들었던 발양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조선 조 후기에는 郡仙圖 中 神仙들의 발양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총각들은 이전의 束髮에서 벗어나 원나라의 영향으로 辮髮을 일반적인 발양으로 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의 수발에 대한 북방유목기마민족의 영향을 비교하였으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농경민족인 漢族, 즉 古代 中國人의 修髮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김동욱, “한국의 民族衣裳과 東北아시아” 자유 129. 1983. 11.
- _____, 「백제의 복식」,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김문자, “古代한국 복식의 源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4. 6.
- 김용문, “우리나라의 修髮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원룡, 「한국문화의 起源」 탐구당, 1976
- _____, 「한국考古學概說」, 일지사. 1973.
- 김주택, “先史時代의 韓中文化교류고” 원광대논문집 2집.
- 김정자, “우리나라 여성의 髮樣에 관한 연구” 服飾 6호. 1982.
- 김정학, 「한국민족형성사」 한국문화사대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록판틴著, 송기중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 대세계의 역사 5권. 삼성출판사. 1982.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1975
- 이여성, 「朝鮮服飾考」, 백양당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古代편 교양국사총서 29. 1978.
- 이춘식, 「중국고대사의 전개」 예문출판사, 1986
- 프레이저著, 김상일譯, 「황금의 가지」을 유문화사 1975.
- 「한국사 I. 고대편」 국사편찬위원회. 1984.
- 「한국의 美」, 중앙일보季刊美術, 19권 풍속화, 21권 檀國金弘道, 22권 古墳美術
- 「한국민속대관」 1. 冠婚喪祭 4. 歲時風俗傳承놀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 황종동, “女眞風俗考” 제명대 동서문화 2집
- 宮崎市定著 조병한譯 「中國史」 역민사, 1983.
- 梅原末治, 「蒙古ノイソウラ發見の遺物」 東洋文庫論叢 27冊 東京, 1960.
- 三國史記
- 高麗史, 高麗圖經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京都雜誌, 東京雜記 禮記史記. 三國志. 漢書後. 漢書. 魏書 梁書. 隋書. 唐書. 舊唐書. 北史. 南史.